

## PREVIEW

경현수 개인전 <형태와 색채>  
Hyounsoo Kyung solo exhibition <Shape & Color>

전시기간 | 2015. 4. 4 토 - 2015. 4. 24 금  
오프닝 리셉션 | 2015. 4. 4 토 17시  
아티스트 토크 | 2015. 4. 18 토 16시



Debris\_경부고속도로\_acrylic on canvas\_162.2 x 130.3 cm\_2015

## ♣ 전시소개

경현수 작가의 개인전 <형태와 색채 shape & color>는 색과 조형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기하학적 추상 작품을 선보여온 작가의 신작 회화들로 구성된다. 그는 단순화된 형태들과 강렬한 단색면들의 화면 구성을 통하여 회화 속에서의 형태와 색채의 명료한 요소들을 부각시킨다. 작가는 지도 속 길들의 구조나 코스피 지수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 상에서 해체,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생성된 우연적인 형태들과 작가 특유의 감수성을 독창적인 조형 언어 안에 녹여낸다. 유려한 곡선과 자로 잰 듯한 직선들, 화려하고 간결한 색채는 철저한 디지털화의 결과물로 보이지만 작가의 모든 회화 작품은 철저한 아날로그적 노력의 산물이다.

## ♣ 인터뷰

Q. 경현수 작가님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컴퓨터를 통한 재처리의 과정을 거쳐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이용하여 작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본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 또는 '내용'은 사라지고 별 의미 없는 형태의 흔적들만 남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데이터의 붕괴과정에서 발견된 작은 조각들, 이것들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성되는 이미지들로 하나의 추상적인 이미지면서, 동시에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c-2, c-2에서 d로 변화하는 유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이미지가 때로는 실제 존재하는 자연물과 유사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미지 제작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제 작업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의미 보다는 보이는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Q. 작품들은 언뜻 보면 디지털화 된 이미지의 느낌을 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붓질의 흔적과 물감의 질감으로 치열하게 손으로 그린, 수공의 결과물임을 알게 됩니다. 작가님은 왜 이렇게 과정과 결과물이 상반되어 보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 노력의 과정들이 작가님에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제 작업의 많은 부분이 디자인의 제작과정, 결과물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 작업의 결과물은 대부분 프린트나 컴퓨터이미지로 소비되기 때문에 이미지의 활용도는 높지만, 이미지 그 자체의 물리적 힘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를 그리기로 했어요. 아마도 디자인과 다른 점을 찾고 싶었나 봐요. 디스플레이의 발달은 우리가 인식하는 사물들의 형태는 더 명료하게, 색은 더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작품 속 이미지도 높은 채도와 날카로운 색단면을 갖기를 바랐어요.

Q. 프로그램을 통해 생겨난 형태와 달리 색채는 대단히 감각적으로 보입니다. 색채 선정에 특별한 공식이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작가님의 감각에 의존해서 색채를 선정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A. 색의 선택은 대부분 감각에 의존해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색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작은 색감의 차이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작품 속 색은 컴퓨터에 선택되기 때문에 RGB 빛으로 만들어져요, 이것을 CMYK 물감으로 표현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요. 물리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물감을 혼합해서 만든 색은 컴퓨터모니터에서 보이는 색보다 어둡고 채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채도가 높은 색과 형광색으로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색칠을 해요.

이정형 개인전 <파인워크>  
Chunghyung Lee solo exhibition <Fine Works>

전시기간 | 2015. 4. 30 목 - 2015. 5. 20 수  
오프닝 리셉션 | 2015. 4. 30 목 18시  
아티스트 토크 | 추후공지



we, digital print, 2015

## ♣ 전시소개

이정형 작가의 개인전 <파인 워크 Fine works>는 노동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과 예술 작품이 주는 아름다움의 관계성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전시 공간 속에서의 '작가업'과 '설치업'이라는 두 직업 사이의 갈등과 괴리감을 느끼고 그것을 작업으로 가져온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요하는 공사 현장에서 생겨나는 비효율적 행위나 우연의 과정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현장의 부산물들을 수집하고, 그렇게 모인 이미지중 일부를 선택하여 전시공간에 재현한다.

## ♣ 인터뷰

Q. 이정형 작가님은 미술관, 전시장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이끌어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것이 최우선시 되는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작업과 관련한 사고를 염두해 두어야 할 때 겪으시는 어려움은 없으신지,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갈등에는 어떤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오히려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됨으로써 뒤편이 해소된 케이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작업과 병행해도 되겠다라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일과 작업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가 보니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영역이 겹쳐지는 지점을 가지고 작업을 이끌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이후부터는 큰 범주에서 일을 하는 것조차 작업을 위한 리서치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점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일단 무의식중에 눈길이 가거나 하는 것은 많이 찍어두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너무 정신이 없거나 일손이 필요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이폰 꺼내서 사진 한 장 찍기도 어려울 때도 많아요. 누군가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면 아주 좋겠지만 또 그러면 작업의 맛이 떨어지겠죠?

Q.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노동현장과 작가가 주체적으로 개입하여 구성하는 작가의 전시공간에서의 역할과 태도가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입장을 오가실 것 같은데, 그 역할에 따른 변화가 궁금합니다.

A. 저는 건방진 '을' 이에요. 일이라는 건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바탕으로 일을 진행하곤 하는데 많은 제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강하게 제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도 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해서 저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작가가 전시공간을 만드는 것이 다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일을 하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노동현장에서는 항상 일정과 시간과 돈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여유는 없어요. 긴장하고 모든 상황을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보지 않으면 항상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저는 클라이언트(갑)의 눈치보다는 아무래도 저 스스로 처한 상황의 복잡함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요.

Q. 예술과 생업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작가님은 과장, 장난스러운 감정, 위트를 통해 시각화합니다. 갈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그 방식들이 작가님에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제가 종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서 절대적이고 숭고한 대상을 만드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술이라는 것이 저한테 종교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술은 숭고해보이지만 항상 반전이나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예술과 노동이라는 상반되면서도 상호적인 두 영역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져요.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희화화하고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것 역시 예술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 | REVIEW with PHOTOS |

한정림 개인전 <잠에 숨겨진>  
Junglim Han solo exhibition <Hidden in slumber>  
2015. 3. 4 - 3. 24



1 | 아티스트 토크, 3월 4일  
2 | 오프닝 리셉션, 3월 4일

현실에서의 결핍을 채워주는 한 요소로서 꿈이 존재한다면 한정림 작가의 꿈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원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꿈들은 작가의 생활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한 사람(한정림 작가)'의 꿈을 현실에서 서서 바라보고 있는 '나(관객)'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건가. 공감 혹은 소통을 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작가는 꿈의 해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관객은 잠결에 쓴 듯한 일어와 영어가 섞여있는 텍스트를 해독하려 애쓰지 않는다. 작가가 지나간 꿈속으로 초대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꿈의 내용들이 친절하게 눈 앞에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기록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함께 나열되어 있는 이미지나 드로잉들이 기억의 파편들을 이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 조각들로 연상되는 개인의 또 다른 꿈을 꾸면 된다. 그렇게 주관적인 시점으로 출발한 작가의 꿈은 흥미롭게도 액자 밖으로 퍼지게 된다.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이정엽 개인전 <기억의 흔적>  
Jungyup Lee solo exhibition <Take me home country roads>  
2015. 1. 30 - 2015. 2. 22



이정엽 작가의 그림은 자극적이다. 작가의 머릿속에 맴도는 부정적인 상상은 일본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커다란 눈의 소녀를 통해 표현되고, 채도가 낮은 푸른 톤의 회화에는 선홍빛 붉은 색 만이 선명하다. 작품 속에 숨겨진 많은 코드들을 읽어내지 못하더라도 이정엽의 그림은 그 이미지와 담고 있는 이야기만으로 흥미롭다. 그림은 친절하고, 음침하고, 조용한 면이 작가와 닮아있다. 잔혹한 내용의 그림 이면에 작가의 쓸쓸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인지 나는 '작가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작가의 말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에게 해소(解消)의 과정인걸까? 관객에게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정엽 작가는 행복해보였다. 여전히 그 그림들은 나에게 다소 자극적이지만, 그림을 보고 불편했던 마음이 그의 웃음을 보고 조금은 훌라분해졌다. (글. 박운삼 코디네이터)



1 | 오프닝 리셉션, 1월 30일  
2 | 전시장 전경,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3 | 북 토크, 2월 13일

## | EPILOGUE |

### #1. 잘생겼다 편



### #2. 도둑들 편



## |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구민정 작가와 박경률 작가가 4.15 ~ 5.23 동안 두산 갤러리에서 열리는 단체전 <보기 위해 눈을 사용한 일 Using the Eye in order to See>에 함께 참여합니다.



구민정 작가가 네이버 캐스트-헬로! 아티스트 <구민정:일상의 오브제로 만든 가상의 풍경>으로 출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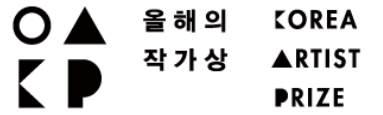
박경률 작가가 자하미술관에서 열리는 단체전 <衆口難防 중구난방>에 참여합니다. 기간은 3.13~4.5 입니다.

강석호 작가가 2.2~2.26 동안 갤러리 분도에서 열린 단체전 <구인전 EXHIBITION FOR 9:HELP WANTED>에 참여했습니다.



장민승 작가가 2015년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메종에르메스 도산파크 전시장에서 열린 후보작가 3인전에 참여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은유적으로 형상화한 영상+소리 작품 연작 '보이스리스(Voiceless)'를 출품했으며, 전시평가를 포함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진. 박중범)

박진우 작가가 1.28~2.17 동안 DDP에서 열린 <brilliant memories>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올해의 작가상 ▲ARTIST PRIZE  
오인환 작가가 <올해의 작가상 2015>전 최종 후보작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8월 서울관에서 개최될 <올해의 작가상 2015>전을 통해 '올해의 작가'가 최종 선정됩니다.

한성우 작가가 5.12~6.14 동안 SPACE BM 에서 개인전을 합니다.

신기운 작가가 영남대학교 조소과 2년 계약직 조교수로 임명, 근무중입니다.

### 오시는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QR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SPACE:  
WILLING  
N  
DEALING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 찬: 엠솔루트 보드카  
발 행: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박운삼, 한황수, 이육진  
감 수: 김인선  
발행일: 2015년 4월 4일

## | W&D NEWS |

독사평 경리단길의 명물인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 방배동 카페골목으로 이전한다. 새로운 공간의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4월 4일 경현수 작가의 개인전 <형태와 색채>로 화려하게 OPEN 한다. 항상 신선하고 즐거운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깨달 같은 역할을 해온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이전 소식은 미술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경리단길 공간은 윤동희 대표의 'a-school' 로 탈바꿈 한다.

한황수 코디네이터는 최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내 다리는 두 개라도 마음은 하나" 라는 발언으로 여자친구에 대한 순애보를 과시하였다. 동석했던 한 지인은 "취하지 않았다면 그런 소리는 할 수 없었을 것" 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하였다.

새로운 인턴 이육진양이 화가였을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래퍼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이육진 인턴은 현재 솔로라고 밝혀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빠리 유학길에 올랐던 이신애 (진)코디네이터가 유학 세 달 만에 늦잠으로 수업에 빠지는 나태한 행보를 보인것에 대해 주위 사람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